

2018년도 공개 강좌

강사: 제임스 라 벨레 (James La Belle)

AM 10:00-12:00	“목회를 위한 교훈” 존 플라벨과 토마스 보스톤의 예
PM 12:00-02:00	점심 및 휴식
PM 02:00-04:00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거룩한 열심”



독립개신교회신학교
THE INDEPENDENT REFORMED THEOLOGICAL ACADEMY

Web: www.ircseminary.kr

Lessons for Ministry

- Of all the good theology we learn from the sermons our Puritan forefathers, their lives are no less a textbook for us than their sermons;
 - Because it's in their lives that we see their theology tested and proven in the face of hardship, trial, and temptation...;
 - In their lives we see doctrine lived out in practice... we see faith fleshed out in real time... and we see men of like nature as ourselves, sinners saved by grace, upheld by the power of Christ...;
- **and so** with the Lord's help today... I'd like to glean a few lessons from the lives of two formidable Puritans...: **John Flavel** of England and **Thomas Boston** of Scotland...;
 - These men, like all the Puritans, were *spiritual giants*...; and their lives stand out as more worthy of imitation than my one message is able to prove...;
 - **But** I've chosen to speak of these 2 **because of** the great encouragement and example they've been to me—both in my *pastoral ministry* and *Christian walk*.] —I had the privilege of studying their lives closely a few years ago and I'm still striving—as **Heb 13.7** charges me—to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and imitate their faith*.]
- *I don't profess for a moment to be an *expert* on either of them...; but I do confess *a holy jealousy* to know more and more of the grace and Christlikeness which shaped their ministries and marked their lives...;
 - and so I pray that you, too, might *catch the fire* that burned in these men and in the *many* fathers of the faith whose lives are still the talk of men and women, and boys and girls, who love God and long for true godliness.]

Let me begin with **John Flavel**...; there's very little *biography*—and even less *autobiography*—to speak of concerning this servant of God...; **but** from the few brief sources we have, let me give you a brief sketch of his life and then suggest *just one* of the ways his life challenges **you** as men training for the gospel ministry...:

목회 사역을 위한 교훈들

제임스 A. 라 벨 목사

- 우리가 청교도 선배들의 설교에서 모든 바른 신학을 배웠는데, 그들의 삶도 설교만큼이나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학이 역경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 시험을 받고 증명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며
 - 그들의 삶에서 교리가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 우리는 믿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 저는 우리의 위대한(formidable) 두 청교도의 삶에서 몇 가지 교훈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바로 영국의 존 플라벨(John Flavel)과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보스톤(Thomas Boston)입니다.
 - 이 둘은 모든 청교도가 그러하듯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제 강의 한 번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 그러나 저는 이 두 사람이 저 자신에게 목회 사역과 신자로서의 여정에서 커다란 격려와 모범이 되었기에 오늘 강의의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삶을 자세히 공부할 기회를 몇 년 전에 가졌었고 히브리서 13장 7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 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기 위해 지금도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는 단 한 순간이라도 제가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전문가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들의 사역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을 ‘특징짓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질투심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경건을 사모하는 남자와 여자, 소년 소녀들이 아직도 그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불태웠던 그 불을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먼저 존 플라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가 스스로 남긴 기록은 더욱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짧은 기록으로부터 그의 삶을 짧게 요약한 뒤에 복음 사역을 위해 훈련받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줄 수 있는 도전 중 ‘단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John Flavel

- I. John Flavel was born as a nonconformist minister's son in 1628 in Bromsgrove—about 2.5 hours northwest of London..;
 - A. Being raised in a godly home, he was educated in religion from his youth—**though** by his own confession...: he was *carried away so many years in the course of this world (like a drop with the current of the tide), wholly forgetting my best self, my invaluable soul; while I prodigally wasted the stores of my time and thoughts upon vanities; —*I was like a servant, he says...to whom my master had committed 2 things...: the child and the child's clothes... *and I spent many years taking good care of the clothes (his body) but sorely neglected the child (his soul)...and would've lost it forever, had not God roused it, by the convictions of His Spirit, out of that deep oblivion and deadly slumber.*]
 - B. *By the mercies of God...* Flavel gave himself to Christ... and once entering upon the ministry, *burned hot* for Jesus to the very end...;
 1. Despite his youth and inexperience... he began preaching in the Spring of 1650 as a probationer, assisting an aging and infirm minister at the church in *Diptford*, Devon where he discovered and honed his gifts of preaching and pastoring, and grew notably in ministerial knowledge...;
 - a) **In fact**, his labors in the church were *so well received* that he was formally *ordained* in the Fall of that same year by the presbytery at Salisbury...;
 - b) and then after the senior minister died, he succeeded him as the Pastor and served *Diptford* faithfully and fruitfully for several years.]
 - C. In 1656, he accepted a call to the thriving seaport of Dartmouth...
 1. It was *less pay*...; but it proved to result in *greater usefulness* as God blessed him with an effective and edifying ministry there;
 2. A quote from one of his parishioners has become well known; it goes like this...:
 - a) *I could say much—though not enough—of the excellency of his preaching; of his seasonable, suitable, and spiritual manner; of his plain expositions of Scripture; his [pains]taking method; his genuine and natural deductions; his convincing arguments; his clear and powerful demonstrations; his heart-searching applications; and his comfortable supports to those that were afflicted in*

존 플라벨

I. 존 플라벨은 비국교도(nonconformist) 목사의 아들로 1628년 런던 북서쪽 2.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브롬스그로브(Bromsgrove)에서 태어났습니다.

A.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수 속에 떨어진 한 방울 물처럼) 이 세계의 삶에 너무 오랫동안 휩쓸려서 나는 진정한 나, 내 값진 영혼에 대해 완전히 잊고 대신 많은 시간과 생각을 헛된 것들에 쏟았습니다.” “나는 하인과 같았습니다”하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내 주인이 두 가지, 아이와 아이의 옷을 맡겼는데, 나는 오랜 세월을 옷(그의 몸)을 돌보는 데만 신경을 쏟고 아이(그의 영혼)은 완전히 무시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성신의 확신으로 깊은 망각과 죽은 것과 같은 잠에서 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아이를 영원히 잃을 뻔했습니다.”

B.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플라벨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자, 끝까지 예수를 위해 뜨겁게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1. 젊은 나이와 부족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플라벨은 1650년 봄에 데본(Devon)의 딥트포드(Diptford)에 있는 교회에서 나이 많고 병약한 목사를 도와 강도사(probationer)로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그 곳에서 설교와 목회에 대한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연마하였으며, 목회자로서의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a) 사실, 교회에서 그의 사역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같은 해 가을에 솔즈베리(Salisbury) 노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b) 그리고 노(老)목사가 소천한 뒤에, 플라벨은 그 뒤를 이어 몇 년간 딥트포드에서 신실하게 또한 열매를 맺으면서 목사로 섬겼습니다.

C. 1656년 플라벨은 번성하는 항구 도시 다투머스(Dartmouth)로의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1. 더 적은 사례를 받았지만 더 큰 쓰임을 받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효과적이고 유익이 되는 목회를 하도록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2. 플라벨이 사역하던 교구민 중 한 사람의 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a) 나는 그의 설교의 뛰어난에 대해, 시기 적절하고 합당하며 영적인 태도에 대해, 성경에 대한 평이한 해명에 대해, 그가 취하는 (힘든) 방법[(pains)taking method], 그의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추론, 그의 설득력 있는 논거, 그의 분명하고 힘 있는 확증, 그의 마음을 살피는 적용, 그리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안하는 도움을 - 결코 충분하지는 않지만 -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이 사람은 진실한 목회 사역을 뒷받침하는 아주 유연한 머리

conscience. —*In short, that person must have a very soft head or a very hard heart—or both—that could sit under his ministry unaffected.*]

- (1) Joel Beeke is not the first person who said to me that *the Works of John Flavel* taught him out to preach.
 - b) His sermons are as edifying to *read* today as they were to *hear* in the 17th century...; they **pulsate with a burning passion** to make Christ known **and with an ardent love** for the souls to whom he preached...; —*I'm always blessed by John Flavel, and I've also learned from him much* about preaching Christ from the Scriptures to the hearts of God's people...;
3. If you've never read any of his writings... you're in for a real treat!]
- D. The hardships of his life were many...; **but the greatest hardships** he bore—and he bore them patiently and cheerfully—were relative to the ministry...;
1. He was, of course, one of the 2500 ministers **ejected** from their pulpits in **1662** for nonconformity—**although** he continued to meet secretly with his parishioners at night, in the forest, and wherever else they could...;
 2. ****So great was his love for the sheep and his commitment to his call, that he simply couldn't be put off from them...! he couldn't stay away from them...! he couldn't stand by idle—as a hireling might—and let his sheep starve for lack of the bread of the gospel...!**
 - a) Once he even disguised himself as a woman on horseback in order to reach a secret meeting place where he preached and then administered a baptism...!
 - b) at another time, when he was being pursued, he drove his horse into the sea and managed to escape by swimming to shore thru a dangerously rocky area.] —*Pastor Flavel was literally unstoppable—because even when he was hindered from going out, he did them—and the whole church of Christ—much good by the power of his pen.*]
 3. When the **5 Mile Act** went into effect he was forced to move to Slapton out of the reach of his adversaries... and he ministered there twice each Lord's Day to as many of his Congregation and others as would *dare* come to meet with him in such a hostile environment...;
 - a) **and yet** he was *still* often found slipping into Dartmouth to feed Christ to his flock! —and of course he was often preaching at secret locations in the woods, sometimes as late

또는 아주 굳건한 가슴 - 아니면 둘 다 - 를 가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i) 조엘 비키(Joel Beeke)는 존 플라벨의 책이 그를 설교의 길을 가도록 가르쳤다고 말했던 여러 사람 중 하나입니다.

b) 플라벨의 설교는 17세기 신자들이 들었을 때만큼이나 지금 읽어도 유익합니다. 그의 설교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그가 설교하는 회중의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고동칩니다. - 저는 항상 존 플라벨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며, 또한 그에게서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3. 만약 플라벨의 글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D. 플라벨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고난은 - 그는 그것을 참을성 있게, 그리고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만 - 목회 사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 그는 당연하게도 1662년 설교단에서 쫓겨난 2,500명의 목사 중 하나였지만 밤에, 숲 속에, 그 외 어디든 가능한 곳에서...비밀리에 교구민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2. 양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의 소명에 대한 헌신이 아주 대단하여서, 물러날 수 없었고 떨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품군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하릴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양들이 복음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a) 한 번은 그가 설교하고 세례를 주었던 비밀 모임 장소에 가기 위해서 심지어 여자로 변장하고 말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b) 또 다른 때는, 쫓기던 끝에 말을 바다로 몰고 들어가서 위험한 바위로 뒤덮인 지역을 가로질러 해변으로 수영을 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벨 목사는 말 그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집에서 나갈 수 없었을 때에도 그는 그의 양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그의 펜의 힘으로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3. 5마일 법(Five Mile Act), 1665이 제정되었을 때 플라벨은 그의 적들의 손이 닿지 않는 슬랩톤(Slapton)으로 옮겨야만 했고 그 곳에서 매 주일마다 두 번, 그러한 적대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그를 만나러 왔던 그의 교회 회중과 다른 사람들을 목회하였습니다.

a) 그리고 여전히 그는 종종 그의 양무리에게 그리스도로 먹이기 위하여 종종 다투며스로 몰래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숲 속 같은 비밀 장소에서, 때로는 늦은 자정 시간에까지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은 숲에서 간신히 잡힐 위기를 탈출하기도 했는데 하던 설교를 마저 마무리하기 위하여 숲 속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as midnight...; One time he barely escaped capture in the woods—only to relocate to another place in the woods to finish his sermon...!]

4. In 1682 Flavel was forced to seek safety in London where he joined his fellow minister William Jenkyn...; **and yet even there** he *narrowly* escaped arrest when a prayer service he was leading was interrupted by guards...;
5. In 1685 Flavel returned to Dartmouth where he was, for a time, under house arrest...;
 - a) **and yet**, to as many of his dear flock as stole into his house *in the night* or *early* on Sabbath mornings, he spent the entire day with them preaching, praying, singing, and conversing about the things of God.]
6. With 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 Flavel—along with many others—returned to his pulpit, and to a most welcome and happy Congregation...;
7. He spent the last 4 years of his life preaching Christ and Him crucified... and died from a massive stroke at the age of 63 on Jun 6, 1691...; His last words were, *I know that it will be well with me.*]

II. When I think of John Flavel I'm challenged by **his indefatigable zeal** for the Lord in his ministerial labors...;

- A. Every service he rendered to his flock was *out of a zeal for God*...;
- B. Every risk he took slipping back into town to preach to his people, to administer the Sacraments in secret, and edify his people—**being** constantly *threatened* by danger and *surrounded* by watchful adversaries—who laid wait like hungry lions to pounce upon him so that he couldn't stay in any one place very long—it was **all** out of a zeal for God...;
- C. He *repeatedly* risked his life... *continually meeting* with his people in the *secrecy* of private homes, in the *darkness* of thick woods, and *under* the cover of dark nights... **all** out of a zeal for God...;
 1. He heart beat *passionately* for what Boston called “his little handful” **because** his heart beat *first and foremost* for the Lord who'd committed them to his charge...;
 2. *These were his sheep*...! and he'd *promised* Christ he would feed them...; he'd *promised* Christ that he would lay down his life for them...; and he'd *promised* Christ that as far as it depended upon him, he would prepare them to meet Him when He comes...;
 3. **and so** he preached to them, *in season and out of season*, and *seldom* missed an opportunity to preach on the Lord's Day to

4. 1682년 플라벨은 런던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곳에서 동료 목사 윌리엄 젠킨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조차 그는 그가 인도하던 기도회가 병사들에게 방해를 받았을 때 가까스로 체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1685년 플라벨은 다투머스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한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 a) 여전히 그는 그의 집으로 밤중이나 안식일 아침 일찍 몰래 숨어들어오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루 종일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 1688년 명예 혁명(the Glorious Revolution)으로 플라벨은 - 다른 여러 사람과 같이 - 설교단으로, 그를 대환영하는 행복한 회중에게 돌아왔습니다.
7. 그는 생애 마지막 4년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못박히심에 대해 설교하며 살았고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1691년 6월 6일 63세로 소천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내가 잘 될 것을 나는 안다(I know that it will be well with me)”였습니다.

II. 저는 존 플라벨을 생각할 때 그의 목회 사역에서 나타난 주께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심에 자극을 받습니다.

- A. 그가 그의 회중에게 베푼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B. 그가 회중에게 설교하고 비밀리에 성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을로 다시 몰래 가면서 위험 - 끊임없이 위협에 노출되고 그를 덮치기 위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숨어서 기다리는 주의 깊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어떤 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 - 을 감당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C. 그는 가정집, 울창한 숲속 어둠, 캄캄한 밤의 덮개 아래서 그의 회중과 몰래 만남을 계속하며 여러 차례 그의 목숨을 걸었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 그의 심장은 보스톤(Boston)이 “한 줌의 적은 무리”이라 불렀던 것을 위해 열정적으로 고동쳤는데, 이는 그의 심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들을 그에게 맡기신 주님을 위하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2. 이들이 그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 그들을 먹이겠다고 서약하였고,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그들을 위해 버리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는 양떼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3. 그래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중에게 설교를 하였고 주일에 그가 모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설교할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았습니다.

- any and all he could gather.]
- D. and like so many Puritan ministers, he was *beset* with numerous infirmities and suffered from poor health—to say nothing of the fact that he buried 3 wives and widowed a 4th...;
1. **and yet** he *labored* in the service of his people with an *untiring* devotion...; he *drained* his strength at the throne of grace for them and *risked* his life to bring the Word to them;
 2. he *preached* to them, *visited* them in their homes, *ministered* to them in their sicknesses and dying hours, *and fasted and prayed* for their safety and deliverance—**all** out of a zeal for God.]
- E. *He knew* God had placed him in his church **and** come hell or high water... he was resolved **that** Christ *would ever find him at his post!*
1. *his heart* was knit to his **Congregation** by a divine hand *and therefore* he *served* his flock with **all** his might and main...;
 2. he kept *nothing* in reserve, held *nothing* back, spared *no* cost, saved *no* jewel, but spent all on the people before him and strove, in every sermon and teaching, and with every breath he had, to present Christ to his people *as an all-sufficient Saviour*...and to present his people to Christ *as a bride without blemish*—**all** out of a zeal for God.]
 3. ***His** was the imitable zeal of a minister and servant of Christ...;
 - a) **and his zeal** is the likes with which I pray God sets ablaze in my heart and ministry.]
- F. *and I pray that his example challenges you to beg of God that the **fire** that *burned in his heart* for Jesus Christ will be lit today and fanned into flame *in your own*...!
1. **Because** it's only when we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that we'll be able, like John Flavel, **to throw** ourselves away for the cause of Christ... **to live** a life of undying devotion to our calling... **to spend** and be spent for His elect... **and to love** not our own *lives* to the death, for the great love we have for *the Lord* of our lives.]
- III. There is so much more to commend about this brother...but we haven't the time...; **So** let me warmly commend his writings to you...; they'll serve you well, stir your heart, and are just the sort of tool in the hands of God to set you *ablaze* with a holy zeal for Christ Jesus our Lord.]

D. 그리고 다른 여러 청교도 목사와 같이, 그는 수없이 많은 질병과 허약한 건강 상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3명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4번째 아내는 미망인으로 뒤에 남겼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1.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는 헌신으로 그의 회중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은혜의 왕좌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의 힘을 소진하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2. 그는 회중에게 설교하였고, 그들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들이 병들고 죽어갈 때 돌보았으며, 그들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E. 그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교회에 두셨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의 자리에서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로 각오하였습니다.

1. 그의 마음은 그의 회중을 위하여 거룩한 손으로 짜여졌고 그래서 그는 그의 회중을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2.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으며 돈을 저축하거나 보석을 간직하지 않았고, 다만 모든 것을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였고 모든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숨에서 그리스도를 그의 회중에게 전적으로 충분한 구세주로 알리기 위하여... 그의 회중을 그리스도에게 흠 없는 신부로 드리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3. 그의 열심은 목자이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받을 만한 열심이었습니다.
 - a) 그의 열심은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과 목회에서 불타도록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열심과 같습니다.

F. 그리고 저는 그의 사례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플라벨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타올랐던 불이 오늘도 밝혀져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1. 우리가 오직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는 존 플라벨처럼 우리 생애의 주께 대한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우리의 소명에 대해 사라지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허비하고 허비되며(참조. 고후 12:15),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II. 이 형제에 대해 칭찬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여러분에게 기쁘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글들은 여러분에게 아주 쓸모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알맞은 도구입니다.

Now let me turn your attention to another figure in church history...:

***Thomas Boston** was a Scottish Puritan in the generation following Flavel. He was *born on this earth* in 1676 and *ascended to glory* in 1732.]

Rather than offering any specific *biography*... I want to take **5 powerful lessons** from the *autobiography* he wrote for his children, titled *Memoirs of Thomas Boston*—which I highly commend to you...;

Thomas Boston

- I. **1st**, we learn that the Lord is most often pleased to do His greatest work through the most simple of men...;
 - A. *I've long appreciated the English Puritans...; and through their writings and sermons I've come to admire their *exemplary* piety and the *depth* of understanding they had of both theology and the human heart...;
 1. And having such a high respect for them as I do, it's *tempting* at times to speak of them with such praise and adulation as to forget that they were *mere men*—men of a like nature as our own (Js 5.17).] —**Well**, reading Boston's *Memoirs* is a sure preventative to that error.]
 - B. **Thomas Boston** was *a mere man*...; He was timid, nervous, generally quiet, and of an overall extremely poor health...;
 1. He struggled greatly *in all his ministry* with physical weakness, fatigue, and a feeling of being near to fainting— from which he could only get relief by making himself vomit; He often spoke of what he called the "*broken* state of my health"
 - C. **But besides** his *physical* infirmities—from which he never got relief, he suffered terribly from numerous *spiritual* challenges...;
 1. He struggled greatly with *doubts and unbelief*...; He often complained about the *deceitfulness* of his own heart and his *worldly-mindedness*...; He spoke at times of having *little hand or heart* for his work...; and he spoke most often of his being "*very dead*" to spiritual duties... and of the Lord withdrawing from him...;
 - a) Furthermore, he was a very *weak* man...; he had **no** natural powers of persuasion... **and no** natural charisma to rely upon in exciting his hearers...;
 2. **Because you see**, Boston was *no greater man* than any other...; he was a sinner saved by grace who learned—through all his afflictions and trials—to feel and to own his emptiness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교회사의 또 다른 인물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 토마스 보스톤(Thomas Boston)은 스코틀랜드 출신 청교도로 플라벨 다음 세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1676년에 태어났고 1732년에 소천하였습니다.

어떤 자세한 전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그가 그의 아이들을 위해 썼던 자서전 『토마스 보스톤 회고록』 (*Memoirs of Thomas Boston*) -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에서 끌어낸 다섯 가지의 강력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보스톤

I.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경우에 그의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하 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A. 저는 영국 청교도들에게 오랫동안 감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글과 설교를 통해 저는 그들의 모범적인 경건함과 신학과 사람의 마음 양쪽 모두에 대해 그들이 가졌던 깊은 이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1. 또 그들을 저처럼 이렇게 크게 존경하면, 그들에 대해 이러한 찬사와 칭찬(adulation) 을 하고 그들도 단지 사람 -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야 5:17) - 이었다는 사실 에 관해서는 잊고자 하는 유혹이 때때로 있습니다. 아마 보스톤의 회고록을 읽는 것 은 그러한 오류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B. 토마스 보스톤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초조해하였으며, 보통 조용하였고,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1. 그는 그의 목회 전체에 걸쳐 신체적인 연약함과 피로와 곧 기절할 것 같은 느낌 - 오직 스스로 구토를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 으로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가 “내 건강의 망가진 상태”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C. 게다가 절대 나아지지 않았던 신체적인 병약에 더하여 그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1. 그는 의심과 불신으로 심각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종종 그 자신의 마음의 속임 과 속된 마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가끔은 그의 일에 노력이나 마음이 부족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자주 말했던 것은 영적인 의무에 대해 죽은 것과 같 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물러가시는 것이었습니다.

a) 또한 그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득력을 타고나지 않았고 청중을 흥 미 있게 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타고난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2.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보스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and to *live* strictly upon God’s fulness and gracious provision for what he needed to fulfill his ministry.

3. ***In fact...** *given* his ongoing usefulness to the church of Christ, even in our own day, we could say his greatest gift was *the physical and spiritual disposition* of such a sort that he was *forced* to live *outside* of himself and *upon* the Lord.]
- D. Even before he was settled in his first parish, he wrote, “the thoughts of my *uselessness* were very heavy to me—which made me beg God for an opportunity to serve Him, whatever pains it should cost me to accomplish it.”
 1. And again he wrote, “I found a *resistance* to duty even in the *very time* of duty...; and as I began my public work, my prayer was according to my frame as I *complained* of a body of death and an ugly heart, and *admired* heaven as a place of rest from my sin.”
- E. **So that the lesson here is this...**: the Lord doesn’t need *great* men to do His work...; Instead, He needs *willing and humble* men, men *ready to admit* their *nothingness* and God’s *greatness*—ready to admit their *emptiness* and God’s *fulness*...;
 1. We should all desire that **God** be *the only One* seen in our labors, and that **God** get the praise for *any* good and success that mark our lives and service—**because** *without Him we can do nothing*...;
 - a) and it’s when we *learn* that lesson *well* that He’s pleased to *use us* to do *some very great things*.]
- II. **2ly**, we learn from Boston’s life the great need for *heart-work*...;
 - A. In the times when God withdrew from him and left him under the rod of His disciplining providences, Boston would *commune* with his heart before the Lord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reason for it
 1. and if he found the cause to be any sin in himself... he would immediately *repent* of it and *set* things in order—as best he could—to *prevent* it from ever happening again...;
 - a) **and so** he was *well acquainted* with his own heart and conscience (cf. Ps 4.4)...; *Boston was no stranger to that all-important duty of *keeping the heart* (Prov 4.23).]
 - B. **In other words**, for all the times he complained of the *deceitfulness* of his heart, he was *as aware* of his own heart *as any a man* ever was...!
 1. When things were out of tune in any part of his thoughts, affections, or will he would go as soon as he could to his prayer closet and wrestle with God like Jacob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set it right.]

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 그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통하여 그의 공허함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과 그의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충만함과 자비로운 주심에 엄격히 의지하여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3. * 사실 ... 그가 이후로 - 심지어 오늘까지도 - 그리스도의 교회에 끼친 유익을 생각하면 그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드기와 같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성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D. 그가 첫 번째 교구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무익함에 대한 생각이 아주 무거워서 나로 내가 그것을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게 합니다."

1.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때에도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적인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의 상태를 따라 기도하였는데, 사망의 몸과 추악한 마음에 대해 불평하고, 내 죄로부터 놓여 안식할 장소로 하늘을 바랐습니다.

E.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 위대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는 자원하는 심정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 자신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 자신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1.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중에서 보이시는 유일한 분이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봉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이나 성공에 대한 찬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아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II. 둘째로, 우리는 보스톤의 삶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heart-work)의 중대한 필요성을 배웁니다.

A.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물리나시고 그를 그의 징계하시는 섭리의 막대기 아래에 두셨을 때, 보스톤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주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내놓고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1.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안에서 어떠한 죄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는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a)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과 양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조. 시 44). * 보스톤은 마음을 지키는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해 모르지 않았었습니다(잠 4:23).

B. 다시 말하면, 그는 항상 그의 마음의 속임에 대해 호소하였고, 다른 어떤 사람 만큼이나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 그의 생각이나 정서나 뜻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최대한 빨리 은밀히

- C. **Now** of course *heart-work* is *hard* work...; **but** it's a whole lot easier when we're *sincerely working at it* than when we *neglect it altogether*...!
1. I'm afraid that *most of us* are much slower to do the *hard* work of *heart-work* when faced with similar disturbances in our own walk; —**Instead** we press on in our duties as if what was needed was greater diligence and effort...!
 - a) But *nothing* we do will go right if the heart's out of tune with God because it's parleying with sin...;
 - b) At the first sign of a wayward and backward heart... we've got to **stop** and get the *fly* out of the ointment and the *beam* out of our eye before we can go on.]
- D. **Now** according to **Jer 17.10** *no one can truly know* the heart but the Lord...; and *no one can sanctify* it but the Lord...;
1. and so we've got to be quick to bring ourselves to the *means* of grace and to the *God* of grace through those means... **because only God** can reveal our hearts to us *and only God* can heal the maladies that hide within it...;
 2. Listen again to Boston, "Yesterday, and this morning, there was in my heart a great resistance to duty... I heard Mr. Colden's weekly sermon, and got several rebukes from it...; The psalm we sung held my sin before my eyes...; After dinner I began seriously to reflect on my case...; I dragged myself to prayer, but it was a difficult exercise to me...; I made many sad halts in it...; and I saw my dreadful departings from the Lord, so that I [could hardly] seek anything from God, and only with great difficulty seek that He would take away this [resistance] to duty...; I remember I was going to seek one drop of Christ's blood for my miserable soul...but with horror of mind, and a shivering of my very body, I couldn't ask for it...; So I laid myself down before the Lord, desiring Him to do with me what He pleased, even if it were to make me a monument of His anger."
 - a) *It breaks my heart to read those words...; **because** I've been there...; I know *that sorrow*...: the heavy sorrow that comes from getting a good look at the evil in your own heart and at the sins you've committed against divine love
 - b) Prayer seems completely out of reach and the very promises of God to the broken-hearted are all *forgotten*... so that *no comfort comes*...; All you can do is cast

기도하는 골방으로 가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문제의 밑바닥까지 살피고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C.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예 돌아보지 않을 때 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에 힘쓸 때 그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1. 유감스럽게도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여정에서 비슷한 방해물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어려운 일에 훨씬 더딥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인 양 우리의 직무에 더 힘을 쏟습니다.

a)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길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죄가 연관되므로 절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b) 체멋대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의 첫 징후 앞에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향기름 속에서 파리를 꺼내고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D. 예레미야서 17:10을 보면 마음을 능히 아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만 아시며, 마음을 능히 거룩하게 할 사람이 없으나 오직 여호와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신속히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은혜의 방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숨은 병폐들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시 보스톤의 말을 들어 봅시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제 직무에 대한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콜든 씨(Mr. Colden)의 주간 설교를 들었고, 거기서 몇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시편이 내 눈앞에 내 죄를 내놓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심각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슬프게도 여러 번 기도 중에 멈추었고, 저 자신이 두렵게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 어떤 것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커다란 곤경 속에서 다만 주께서 직무에 대한 저항을 가져가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제 비참한 영혼을 위하여 단 한 방울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 몸의 떨림으로 인하여, 저는 그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나를 그의 분노의 기념비로 만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a) *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그 슬픔,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악과 여러분이 거룩한 사랑에 대항하여 범한 죄악을 똑똑히 보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무거운 슬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b) 기도를 전혀 드릴 수 없을 것만 같고 상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잊힌 것만 같아서 어떤 위로도 없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yourself upon the mercy of God and let Him *do as seems good to Him*...;

c) and what a mercy it is!... that the Lord *sees* that broken heart and *hears* that wordless prayer... and *heals* the broken, *restores* the prodigal, and *lifts up* the downcast.]

3. In another case of his giving in to temptation he wrote, “I was most ugly and *hell-colored* in my own eyes, and verily believed there was *none* so unworthy as I...; Then *my heart-monsters* (pride, worldly-mindedness, and discontent) all stared me in the face, and my poor heart was *overwhelmed* with sorrow...;

The next morning I got a revival; and through the day, for the most part, I wasn’t so downcast...; **But** being scheduled to preach in the afternoon, I got up to Mr. Stark’s [loft] between sermons, and at the south-east corner of it *I conversed with Christ*; *and Oh! it was a *Bethel* to me...! What I long looked-for came at last...! If ever *poor-I* had communion with God, it was *in that place*...! The very remembrance of it melts my heart.”

4. Let one more entry suffice, “In prayer my heart was melted for my sins, because they separated me from God, who was now come again to me...; I was afraid to live any longer, because of my evil heart...; *Gladly* would I have been with Christ out of the reach of it!—so content was I to leave all the world behind.”

E. Boston struggled *greatly and often* with doubt, unbelief, and spiritual coldness...; **but** *he knew immediately* **when** his heart was *out of tune* with joy, **when** it was *resistant* to duty, **when** it was *being pulled* in an unholy direction, **and when** it was *left alone* by God in duty... **because** he was diligent—as so many Puritans were—in the *hard* work of *heart-work*...;

1. *Surely*—this is a spiritual discipline that we need to *recover*.]

III. **3dly**, we learn from Boston that trials are *common* Christian experiences;

A. It’s all too easy—and too common—to imagine that our trials are unique to us and that none has fared or struggled in the Christian life with such hardships as we have...;

1. We imagine that no one’s cross is as large or painful as the one the Lord’s placed upon *our shoulders*...;

2. **But this is all wrong**...; Boston—and all the Puritans with him—were men of *exemplary* piety, *mightily* used of the Lord, **and yet** their lives were *marked* and *characterized* by **trials**— as Paul says, *for Christ’s sake* they were *being*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c) 그리고 얼마나 크신 자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한 마음을 보시고 말없는 기도를 들으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고 탕아를 회복하시며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말입니다.

3. 그가 유혹에 굴복한 또 다른 경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눈에 나는 가장 추하고 지옥의 빛을 하고 있었으며, 참으로 나와 같이 무가치한 자가 또 없을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괴물들(교만, 세상적인 마음, 불평)이 얼굴을 마주하고 모두 나를 노려보았으며, 내 가련한 마음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대부분은 그다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예정된 설교가 있었고, 설교 사이에 스타크 씨의 [다락방]에 갔는데, 그 동남편 모퉁이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 그곳은 나에게 벤엘과 같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찾던 것이 마침내 왔습니다! 나와 같은 가련한 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곳에서였습니다! 바로 이 기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4. 하나 더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내 마음은 내 죄로 인하여 녹아내렸는데, 내 죄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내 악한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이를 수 없는 곳에 있었다면, 나는 온 세상을 남겨두고 떠나도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E. 보스톤은 의심과 불신앙과 영적인 냉담함으로 자주, 심각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기쁨과 어긋났을 때, 직무에 대해 저항했을 때, 불경한 방향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없이 홀로 의무를 행할 때, 즉시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청교도들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어려운 일을 근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 물론 이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징계입니다.

III. 셋째, 우리는 보스톤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이 흔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A. 우리의 시련이 특별한 것이고 아무도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고 씨름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기 매우 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우리는 다른 누구의 십자가도 주께서 우리 어깨 위에 올려 주신 것처럼 크고 무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스톤과 그와 같은 모든 청교도들은 모범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고, 주께서 능력 있게 쓰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시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롬 8:36).

killed all the day long and regard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Rom 8.36)

3. **Indeed**, the lives of *most* of the church's fathers cause us to *reconsider* our contemporary paradigm of a trouble-free life for Christians...!
 - a) **Because** as Christ Himself said,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Jn 16.33)...; and as that exemplary Apostle said,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Acts 14.22).]
 4. *Since when* is the Christian life supposed to be *trial-* and *trouble-free*?
 5. Upon what ground have we come to think that the Christian life is "supposed to be" *without* a cross...?
 6. Didn't our Lord put the cros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Christian life in Mk 8.34...?
 - a) Then how can we think that we can get *through* the Christian life and *out of* this world *without* bearing one!?
 7. Shall the Head suffer and not the Body...? and are we not called to *fill-up the sufferings of our Saviour* (Col 1.24)...?
- B. The point to consider, then, *is not whether or not* the Christian life is marked by trials and sufferings...but *why* is it so marked...?
1. **Why** does the Lord take His people by such a path as He does?—>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the valley of humiliation, and the valley of tears*...?
 - a) Surely we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 (1) The Lord uses our trials to *humble* us, *mentor* us, *bring* us to repentance, and *increase* our faith...;
 - (2) and rather than being *absent* from our trials, He *is Himself* both *present* in them and *in control* of them for His glory and our good...; and **this** is a great comfort to us as God's people.]
 - b) Listen to Boston speak of **the profit** he gained from *a double-fisted trial* he faced regarding **his** refusal to sign an oath at Presbytery on the one hand **and God's** withdrawing His presence from his studies on the other...:
 - (1) "As to the sacrament in June, I have little to say about any comfort *I* got from it...; My furnace was *hot*... *partly* by reason of the business of the oath again, which came on me like a thunder-clap...; *and partly*, by the affliction of one of my own...: the Lord was pleased to withdraw from me in my studies, so that for the two days, Tues and Wed, I could do nothing there to my satisfaction...; *but* I moved forward as best I

3. 실로 교회의 선조(先祖)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 a)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셨고(요 16:33), 모범적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하고 말했다기 때문입니다(행 14:22).
 4.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련과 곤란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5.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십자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6. 우리의 주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 시작에 십자가를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 a)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7. 머리는 고통을 받으셔야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골 1:24)
- B.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련과 고난으로 특징지어지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특징지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1. 왜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러한 길로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치욕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 데려가십니까?
 - a) 물론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 (1) 주께서는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 (2) 그리고 우리의 시련에 부채하시지 않고, 주께서 친히 시험 가운데 계시며 그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을 관리하십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 b) 보스톤이 그가 한편으로는 장로회의 서역에 서명하기를 거절한 일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서재에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 일로 인하여 겪은 이중의 시험으로부터 얻은 유익에 대해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 (1) “6월에 있었던 성찬에 관하여, 내가 거기서 어떤 위안이라도 얻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 풀무는 뜨거웠습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나에게 천둥 소리와 같이 닥쳐온 서약과 관련된 일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일부는 나 자신에게서 유래한 고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내 연구에서 하나님께서 물러가기를 기뻐하셔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나는 만족할 만한 것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요일 밤에 성경 본문을 최선을 다하여 계속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나는 축복의 표지 하나 없이 그에 관한 설교 하

could on the text on Wed night...; and on Fri I hammered out a sermon on it, with no sign at all of a blessing...; *Although* I did get some blessing out of it in meditating on it afterwards; and that was increased in the preaching of it. // On top of that... a madman was so unruly during the Sacr, that I was much confounded in fencing the Lord table...; I recovered a little at the table; but when I was finished, I was greatly disturbed and cast down.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use of this, however, to the further discovery of my sinfulness and emptiness, issuing in a melting of heart, under a sense of my own sinfulness and the goodness of God...; It was a melancholy time at the sacrament in 1712, the first year of the oath...; Surely it is to keep me humble and depending.”

- c) and so on the one hand, Boston reminds us to *expect* trials; and on the other hand he teaches us to *seek to learn from them, because* they come from a sanctifying Father with a sanctifying purpose.]
2. **Because what does Scr teach us but that...**our trials **are** the *tools and instruments* by which God, as a master carpenter, shapes and conforms us to Christ’s image (Rom. 8:28-29)...; **They’re** the *means* by which God brings to completion the good work He began in us (Phil. 1:6-7)...; **They’re** the *occasions* for our faith to give way to steadfastness and maturity (James 1:2-4)...; **They’re** the *means* by which God tries us to *reveal* our hearts (Gen. 22:1, 12) and *expose* our sin to lead us to repentance (Job 42:3b, 5-6)...; **and they’re the necessary goods** sent to test the genuineness of our faith and prepare us for the return of Christ (1Per 1:6-7; Mt. 10:22).
- C. So not only is it *foolish* for us to think that we can avoid trial, difficulty, and affliction as Christians... but why would we want to...!?
1. If they serve such an important purpose within the plan of God’s redemption of us, then we *can’t afford* to live *without* them...!
 2. **Indeed**, we should *thank God* for them...! **After all**, is this not the conclusion at which the apostle arrived when he realized how much his trials profited him?...: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of my weaknesses,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For the sake of Christ, then, I am content with weaknesses, insults, hardships,*

나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내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 명상하면서 복을 얻었고, 그 복이 설교를 하면서 더 커졌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미치광이가 성찬 예식 중에 아주 제멋대로 굴어서 주님의 상을 지키는 일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성찬을 집행하면서 약간 회복하였지만, 마쳤을 때 나는 대단히 심란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내 악함과 헛됨을 더 깊이 발견하도록 하시고, 나 자신의 악함과 주님의 선하심을 의식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게 하셨습니다. 1712년, 서약의 첫 해의 성찬은 우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로 겸손하고 주를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 c) 그러므로 한편으로 보스톤은 우리에게 시험을 예상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으로부터 배우기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험들은 기록하신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뛰어난 목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맞추는 데 사용하시는 연장과 기구라는 것입니다(롬 8:28-29). 시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수단입니다(빌 1:6-7).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성숙함으로 바뀌는 때입니다(약 1:2-4).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시험하시는 방편입니다 (창 22:1, 12). 시험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꼭 필요한 자극입니다 (벧전 1:6-7; 마 10:22).
- C.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시험과 곤경과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더러, 우리가 그것을 왜 원하겠습니까?
 - 1. 만약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목적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그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 2. 실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결국 이것이 사도가 그가 당한 시험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유익을 주었는지 깨달았을 때 도달했던 결론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10).

persecutions, and calami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2 Cor. 12:9-10).

- D. Boston found his trials profitable... and by God’s grace *so shall we*...; ***If** we’ll but *look* to the Lord in our troubles and *blv* that it’s by them that He’s come to do business with our souls for our good, **then** we’ll find ourselves able to conclude as Boston did,
1. “This has been a time of many troubles to me, so that I have sometimes wondered what the Lord intended to do with me...; **But**, reflecting on my troubles, I clearly saw the *need* of them...and my soul was made to **see** God’s *love* in them all...; and from my heart, I was made to say, *He has done all things well*; —The fruit of them is, that I have thereby seen the *vanity* of all things besides Christ, and that there is *no rest* but in Him alone, and in the desire to be with Him, which is best of all.”]
- IV. **4thly**, Boston reminds us of the *great comfort* a Christian can have in God’s providence...;
- A. If there’s a refrain that echoes and sounds thru the many “stanzas” of Boston’s *Memoirs*, it’s his unshakable conviction that “God has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 B. In my personal opinion... Boston’s happy submission to God’s over-ruling providence was *the golden thread* running thru the entire account of his life as he recorded it in his *Memoirs*...;
 1. Boston believed it with *all* his heart... it was the anchor for his soul in *all* storms... and it was the refuge in which his *often* bewildered and perplexed soul found the *greatest* comfort...;
 - C. Towards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he wrote, “The evening-exercise, on the question concerning the providence of God, was sweet to me...: and in conversation after it, it was a pleasure to think and speak of the saints’ reasons for encouragement from that doctrine when they find themselves facing trouble...: *particularly*, **how** it is *their God* that guides the world, and that they meet with *nothing* but what comes through their Lord’s fingers...; *and also how* He *weighs* their troubles to the least grain, so that no more falls to their share than they need...; *and also how* they have a covenant-right to chastisements by which the Lord’s deals with them as *sons* and rightly educates them and not as *servants*, whom the master *won’t* educate, but put away.”
 - D. **But** more than *supposing* that such a doctrine brought encouragement to sufferers... he actually found it to be so...;
 1. *Less than 3 weeks after that reflection, in a moment of great trial and discouragement, he wrote these words, “But my soul blessed the Lord, that I had **Christ** to run to...: it was the very support of my soul **that** God governed the world **and that** I might pour out my complaint *into His bosom*...! —*Accordingly* I lay down and slept with that word in **John v.22**, *The Father*

D. 보스톤은 그가 당한 시험이 유익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일을 하신다고 믿는다면 보스톤과 같은 결론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에게 많은 곤경의 시간이 있었고,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시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곤경들을 돌아볼 때, 나는 그것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았고 내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그가 다 잘 하였도다”(막 7:37)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의 헛됨을 보았다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IV. 넷째, 보스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큰 위로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A. 보스톤의 회고록의 여러 연(stanzas)을 가로질러 메아리치고 들리는 후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B.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사를 통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보스톤이 기쁘게 순종한 것은 그가 그의 회고록에 기록한 것처럼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을 관통하여 흐르는 금실입니다.

1. 보스톤은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믿었고 그것은 모든 폭풍 속에서 그의 영혼의 닻이었으며 자주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의 영혼이 가장 큰 위로를 찾는 피난처였습니다.

C. 그의 목회의 시작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 시험에서 주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은 나에게 달콤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해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교리로부터 격려를 얻는 것에 대한 신자들의 사유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특히 어떻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들이 주님의 손가락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곤란을 가장 적은 티끌까지 채워서 그들이 필요한 것 이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주인이 가르치지 않고 쫓아내어 버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시고 바르게 교육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징계에 대해 언약적인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D. 하지만 그러한 교리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격려가 된다고 추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실제로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 이 회상으로부터 3주도 되지 않아서 큰 시험과 낙심의 때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야 하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hath committed all judgment to the Son... which has been sweet to me many times.”

- E. Only someone who’s actually read his *Memoirs* can know how *thoroughly* that last statement was borne out in Boston’s life...;
1. *He did indeed* find comfort in God’s over-ruling hand in his life.
 2. He was fully persuaded that **every trial was wisely and profitably ordained for him by God—from those** in his church caused by divisions... *to those* in his Presbytery caused by misunderstandings... *to those* in his home caused by his wife’s severely trying sickness (which caused her to be bed-ridden for many years)... *to those* in his ministry caused by bad weather or sick horses... *to those* in his own life caused by pain, toothache, weakness, lack of sleep, and a host of other things...;
 3. He was *convinced* that his sufferings were *part*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therefore* a reason for **comfort** and not **despair**...;
 4. He took **comfort** in being treated *as a son* under his Father’s loving and educating hands (Heb 12.6ff)...;
 5. And he *sought*—in every trial—to behave himself in a way that would *glorify God*...;
 - a) **Indeed**, at the *end* of his trial-filled life, he spoke no differently than at the *beginning*: “I was heartily pleased to see how *my God* ordered my *labour*, my *rests*, and all my *actions*, wishing always to be under no other governance [than His].” —and that’s the **same** comfort and assurance we can all have in our Lord’s over-arching governance over our lives (Col 1.15-17).]
- V. **Lastly**, we learn from Thomas Boston how important it is for a minister to be *sure* of the Lord’s calling...;
- A. Boston pastored two parishes, the first in Simprin and the second in Etterick...; and in both places he faced *a great many* trials which tried his patience, his peace, and his confidence...;
 - B. **In fact** his trials were so great that *nothing* could’ve kept him from leaving those churches but the clear sense he had *of the Lord’s call* to be where he was...;
 - C. **Listen** to his record after two years of *very hard* ministry in Etterick, “My discouragements increase daily among this people... **My circumstances are extremely heavy...; they seem to have little desire for the gospel...: the most weighty truths look nauseous to them; —Either from laziness or profane neglect, some have not come to church since I arrived...;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were always

바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가 나의 호소를 그의 가슴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워서 요한복음 5:22의 말씀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나에게 달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E. 오직 그의 회고록을 정말로 읽은 사람만이 마지막 문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스톤의 삶에서 증명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그는 참으로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2. 그는 분열로 인해 교회 안에 생긴 시험에서 오해로 인해 그가 속한 노회에 생긴 시험, 그의 아내의 심각한 병(여러 해 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했던)으로 가정에 온 시험, 나쁜 날씨나 아픈 말로 생긴 목회에서의 시험, 고통과 치통(齒痛)과 약함, 수면 부족, 수많은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긴 시험들까지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현명하고 유익하게 정하신 것이라는 온전히 생각하였습니다.
3. 그는 그의 고통이 은혜 언약의 일부이며 따라서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위안을 얻을 근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4.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양육의 손 아래 아들로써 대우하시는 것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히 12:6이하).
5. 그리고 그는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구하였다.

a) 실제로 그의 시험으로 가득했던 삶이 끝나는 때에도 그는 처음과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안식과 모든 행동을 명하셨는지를 보며 진정으로 기뻐하였고, 항상 다른 누구의 통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인 통치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위로화 확신입니다 (골 1:15-17).

V. 마지막으로, 우리는 토마스 보스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는 것이 목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웁니다.

- A. 보스톤은 두 교구를 돌보았는데, 첫번째는 심프린(Simprin)에, 두번째는 에터릭(Etterick)에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그는 그의 인내와 평온과 확신을 시험하는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 B. 실제로 그가 당한 시험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가 자신이 선 자리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지각이 없었다면 어떤 것도 그가 그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C. 에터릭에서의 2년 동안 아주 힘든 사역을 한 뒤에 그가 남긴 기록을 봅시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낙심이 매일 커져 갑니다. ** 내 형편이 극도로 무겁습니다. 그들은

dissenters; —Of those that *do* come, many of them think nothing of staying away several Sabbaths at a time...; and then *when* they come, they're generally very uncomfortable...; **My usual habit of talking with convicted souls is gone...because there's no conversation about anything but [what] *stifles* the practice of godliness; —The crown is fallen from my head, and I am brought very low! —The approaching Sabbath, that used to be my delight, is now a terror to me...; so that now my work is to get my forehead steeled against the brass and iron of the people's...; **This last Sabbath was 14 days since I felt the sad effects of giving way to discouragement...and this has put me on my guard...; **I have sometimes asked myself, whether, if I had known all that would befall me here, I would've accepted the call... and I can't say that I would not've refused...;

****But** 2 things are supporting me here: **1.** My conviction as to my call from the Lord, which has not been perplexed by all that I've met with...but still remains as a solid ground of comfort...; **and**

2. An amazing mark of Providence in preaching the Word, whereby I am guided in my ordinary [sermon schedule] to speak so well to the cases of my people.”

D. **and so** we learn that **this** is a great foundation for a minister to stand upon in the face of the many trials of his ministry...: **that** he's *at the Lord's* post... and **that** he's undoubtedly **where the Lord** put him...;

1. Because without this, any lack of success, along with the presence of trials, might tempt him to think that he was wrong in coming...and that the Lord's not with him in his ministry;
 - a) and if he faces any opposition or neglect from the people on top of it, then he might grow discouraged and begin to pull back on his work and desire and look for another call;
2. However, if he's *sure* of his calling *to that church*... then no matter *what* difficulties he faces in his duties and *what* trials he meets with among the people he serves... he can stand, in whatever storm, upon this foundation...: **that he is** where he's **supposed** to be...and **therefore** the Lord **will** see to His own work.]]

복음에 대한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들에게 역겨워 보입니다. 나태함 때문인지 불경한 무시 때문인지 내가 온 뒤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항상 반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은 때때로 여러 주일 동안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면 보통 아주 불편해합니다. ** 죄를 자각한 영혼들과 이야기하던 내 평소 습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경건의 실천을 억누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면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관은 내 머리에서 떨어졌고 저는 아주 낮은 위치에 놓였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즘 내 일은 사람들의 눈과 철로 된 이마에 대항하여 내 이마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 지난 마지막 안식일은 내가 빠진 낙심으로부터 오는 슬픈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지 14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나로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내가 여기서 나에게 닦칠 모든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청빙을 받아들였을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두 가지가 지금 나를 지지합니다. 1. 주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확신은 내가 여기서 겪은 모든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단단한 위로의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 말씀 선포에서 드러나는 섭리의 놀라운 표지. 내가 정해진 일정대로 설교를 할 때 내 회중의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이야기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D. 따라서 우리는 목사가 주님께서 두신 자리에 있는 것과 그가 여지없이 주께서 그를 두신 곳에 있다는 것이 목사가 목회 사역에서 겪는 많은 시험 앞에서 굳게 서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1.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면, 성과가 없을 때에 시험이 오면, 목사는 자기가 잘못 왔으며, 주님께서 그의 목회에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 그리고 만약 그가 거기에 더하여 사람들의 무시나 반대에 직면한다면, 그는 더 낙심하여 그의 일에서 물러나 다른 부르심을 바라고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2. 하지만 만약 그가 그 교회에 대한 그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직분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가 섬기는 회중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기초 위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라도, 설 수 있습니다.

- VI. There are so *many* lessons to learn from the *faith* and *lives* of our fathers...;
- A. Their writings and sermons are *goldmines* of doctrinal truth and practical directives for all of life...; but their biographies and memoirs are no less profitable and encouraging as they remind us **that** they were *men very much* like us... **indeed, sinners** like us...who *lived* upon the *faith* they confessed, *practiced* the *principles* they preached, and *trusted* in the *Christ* they held forth;
- B. **So** may I encourage you today to rest assured that **the Christ** who upheld *them* in trial, gave *them* victory over sin, and blessed *their* ministries, will do the same **for you, because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more...** and He's ever faithful to equip those He calls and to accomplish in them the work for which He called them.]

Bibliography

The Life of the Late Rev. Mr. John Flavel, Minister of Dartmouth,
The Works of John Flavel, 1.iii-xvi. (Banner of Truth, 1968)
Thomas Boston, *Memoirs of Thomas Boston* (Banner of Truth, 1988)

VI.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아주 많습니다.

- A. 그들의 글과 설교는 교리적인 진리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담은 금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기와 회고록도 우리에게 그들도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점에서 역시 유익하고 격려가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들이 가르치는 원칙을 실천하였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B. 그러므로 저도 오늘 그들을 시험에서 지키셨고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의 목회에 복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한결같이시고, 그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The Life of the Late Rev. Mr. John Flavel, Minister of Dartmouth, *The Works of John Flavel*, 1.iii-xvi. (Banner of Truth, 1968)
 Thomas Boston, *Memoirs of Thomas Boston* (Banner of Truth, 1988)

The Puritans on Sacred Zeal

Rev. Dr. James A. La Belle

Introduction

I want to share with you what I've learned from the Puritans about the virtue of Christian zeal— what the Puritans often called sacred zeal. We don't hear much about zeal in the church today, but zeal was a frequent topic among the Puritans. They wrote whole treatises on it and it always showed up in connection with the topic of personal holiness because, as I'll explain in a moment, they believed that *zeal* is what preeminently characterized the manner in which every aspect of our Christian holiness was to be lived out.

This subject became very important to me several years ago when I had the privilege of writing a book with Joel Beeke in which we mined the depths of Puritan wisdom on what it means to live earnestly and zealously for God. In fact, it was in the study of this topic and in the writing of that book, that God brought about a great repentance in my own life and started a fire in my heart for His glory that, by His mercy, still burns today.

—I'll organize my comments around 5 questions.

What is sacred zeal?

The *obvious* question with which to begin is this, *what is sacred zeal?* Let's start with this as a definition: Christian zeal is a sacred flame lit in the soul by God, which sets all the affections on fire for God and results in all of life being lived to God's glory.

I give you this definition because it picks up on two critical elements in the nature of Christian zeal that we should highlight. *First*, zeal's not a distinct grace, like contentment or patience or humility, as it is a flame that turns the heat up on *all* the graces of the Christian life. In other words, sacred zeal is such that it gives alacrity and vigor to every grace. It enables

청교도에게서 배우는 거룩한 열심

제임스 A. 라 벨 목사

들어가며

저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종 거룩한 열심이라 불렀던 그리스도인의 열심의 미덕에 관하여 제가 청교도들로부터 배웠던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하지만, 열심은 청교도 사이에서 흔한 대화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에 관하여 책을 한 권 쓸 정도였고, 열심은 항상 개인적인 거룩함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제가 곧 설명하겠지만,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모든 측면에서 구현되는데, 그 방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열심’이라고 청교도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몇 년 전 제가 조엘 비키(Joel Beeke) 목사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청교도의 지혜를 깊이 탐구하는 책을 쓰는 특혜를 얻었을 때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크게 회개하도록 하였고 주의 영광을 위한 불길을 내 마음에 일으켰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 불길이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다섯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거룩한 열심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기해야 하는 당연한 질문은 바로 ‘거룩한 열심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시작해보시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일으키신 거룩한 불꽃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의 본질에서 두 중요한 요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열심은 만족이나 인내나 겸손처럼 격리된 은혜는 아닌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은혜를 강화하는 불꽃인 까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the Christian's graces to "reach for the stars!" in the pursuit of God's glory. Sacred zeal does to the Christian's graces what a fire does to the water in a pot—it brings it all to a boil, and not just a portion of it.

The *second* element identified in this definition is: Christian zeal is never confined to a particular part of one's life—as if one could be zealous about true doctrine but not about holy living; or zealous for the First Table of the Law and not the Second. Instead, Christian zeal is like a varnish over the whole life that gives a sacred lustre and gloss to every part of it. When sacred zeal burns in a man's heart, it impacts every part of his life. It's like the salt in the sea—it's a part of every single drop.

I just love this definition by the Puritan **John Reynolds**, "Sacred zeal is the vigor and ardency of the renewed, consecrated soul. 'Tis divine grace, bubbling up in the heart and flowing out into the life and practice. It is the effervescence of inward grace."

It always helps to understand something by its *opposite*. The opposite of sacred zeal is the apathetic, lukewarm condition of the Laodiceans in Rev 3. It's the cold indifference of a heart whose love and desire for God has waxed cold. And just as a lukewarmness toward God creates a lethargy in the whole person toward everything holy, *so* a zeal for God creates a passion for God in the whole person in every area. —Which is why you can't put a finger on zeal as a "separate thing;" because it *runs through all* the affections and through all of life. And that's also why the Puritans argued for the preeminence of sacred zeal for a life of holiness. Because if all the issues of a man's life flow out of the heart (Pr 4.23), then *nothing* could be more helpful to living all of life to the glory of God than to get the divine flame of sacred zeal burning in your heart and ordering all the heart's issues for God's glory.

Because there's an important clarification to make here. Christian zeal isn't some wildfire in the heart blazing blindly with no direction or aim. The zeal which God lights in the believing heart is *a sacred passion* for God that's regulated by His Word. It asks questions like: what has God commanded of me in this case? what will most glorify God in this situation? and what's the most I can do for God in this hour?

In fact, we could say it like this: sacred zeal is a passion graciously birthed by God in the soul, which then burns for God's glory and pursues

열심은 모든 은혜를 활발하게 하고 활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하나님 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도록”(reach for the stars)합니다. 거룩한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은혜에게 작용하는 것은 불이 항아리에 담긴 물에게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아리의 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절대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참된 교리에는 열심이지만 거룩한 생활에는 그렇지 않거나 십계명의 첫째 돌판(First Table of the Law)에는 열심이면서 둘째 돌판에는 그렇지 못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삶 전체를 덮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 거룩한 광택과 윤이 나게 하는 광택제와 같습니다. 거룩한 열심이 한 사람의 가슴에서 나오면, 그것은 그의 삶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닷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모두 들어 있는 소금과 같습니다.

저는 청교도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가 말한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거룩한 열심은 거둬나고 거룩하게 된 영혼의 활력과 열심이다. 그것은 가슴에서 끓어올라 생활과 실천으로 흘러 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룩한 열심은 내적 은혜가 끓어 넘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반대되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거룩한 열심의 반대는 심드렁 (apathetic)하고 뜨뜻미지근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차갑게 굳어 버린 가슴의 냉담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뜨뜻미지근함이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해 전인에 무기력함을 가져오듯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모든 영역에서 전인의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심을 “분리된 것”이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열심이 우리의 정서(affections)과 삶 전체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열심의 탁월함(preminence)을 지지하였습니다. 생명의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잠 4:23),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르며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리하는 거룩한 열심의 신성한 불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전부 드리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방향이나 목적 없이 마음에서 맹목적으로 나오르는 들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지펴 주시는 이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무엇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열심은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주시

God's pleasure *because* it's regulated by God's Word. When we're ablaze with Christian zeal, our lives are noticeably marked by a *love* for God, a *desire* that God be obeyed in all things, at all times, with all the heart, and a *commitment* to the Word of God as the only infallible rule for faith and life.

At the risk of redundancy, let me sum up it up like this: Christian zeal has its *source* in God's grace and finds its *goal* in God's glory, so that *every step* it takes between those two end points is done with an eye to God's pleasure and under the guidance of God's Word. And *that's* what sets sacred zeal apart from the blind, false, and misplaced zeal that the Bible forbids.

What are the marks of sacred zeal?

A *second* question involves how we can know whether or not we have this sacred zeal. The marks of sacred zeal are also the fruits, so that if you have these *marks*, then you have the *root and seed* of sacred zeal in your heart. I've included 6 marks in my book but here I want to give you just four.

The first is *a love for God*. The zealous Christian is a possessed with a fervent love for God, a love that craves God's presence, a love that longs for the Lord's Day, a love that delights in the Word of God, a love that rejoices in all things that bring God glory and honor. Zeal creates such a hunger and thirst for God that it makes the Christian look out his window and cry out with the Bride in Song of Solomon, "Why are His chariots so long in coming? If you see my Beloved, tell Him that I'm sick with love!" In fact, a fervent love for God is so much a mark of sacred zeal that some Puritans, like **John Preston**, have said that sacred zeal is best defined as *love on fire*. What was it but *His fiery love for God* that led our Saviour to say in **Ps 69**, "*zeal for your house has consumed me*"? And what was it but *His fiery love for His Beloved Son* that caused the Father to say of Christ's reign in **Isa 9.7**,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If we're truly zealous for God, *the 1st place* it'll show itself is in our love for God and for all those things which bring Him glory and honor.

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열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모든 일에서, 모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에서 유일한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 그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한 말의 반복이 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으므로 양 끝 사이에서 걷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열심을 성경에서 금하는 맹목적이고 잘못된, 부적절한 열심으로부터 구별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열심의 표인가?

둘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의 표는 그 열매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표를 보인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열심의 뿌리와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는 6가지 표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표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 사로잡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일을 고대하며,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모든 일을 크게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허기와 갈증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창 밖을 보며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처럼 부르짖게 합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삿 5:28 부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아 5:8 부분). 사실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은 거룩한 열심의 아주 분명한 표지여서 존 프레스턴(John Preston)과 같은 어떤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거룩한 열심은 불타는 사랑으로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시 69:9; 요 2:17) 하고 시편 69편으로 말씀하시도록 한 것도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 이사야서 9:7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시도록 한 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성부의 열렬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A second mark of sacred zeal is *a devotion to good works*. Because the Christian *loves* God and *longs* to see Him glorified and honored, the 1st place he looks to see this is *in his own life*. Zeal makes the Christian pursue personal holiness. It makes him strive to see his own life conformed to God's image. It makes him give himself to the heart-work of 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so that if God is seen anywhere, it's in his own life and walk. Zeal puts a man in the way of God's Commandments and causes him to run the race before him with perseverance, with diligence, with resolve, and with joy, in order that men may see his good works and glorify his Father in heaven. **John Reynolds** said, *The zealous soul is continually saying to itself or to others, 'What shall I render to the Lord?'* If we claim to be zealous and haven't given ourselves over, with diligence and delight, to both Tables of the Law; if we claim to be zealous and haven't resolved, by grace, to walk in all the good works which God's prepared for us, then we're deceiving ourselves and need to repent of self-love, of laziness, and of lukewarmness, before we'll ever be truly zealous for God.

A third mark of sacred zeal is *constancy*. The lukewarm Christian is zealous one day and not the next; zealous for singing but not for preaching; zealous when the going is easy, but not when the going gets tough; *but not* the zealous Christian. The zealous Christian seeks by God's grace to run his race from beginning to end; to be as zealous tomorrow as today; as zealous for *suffering* the will of God under a cross as well as for *doing* the will of God under a crown. It's as zealous for God when the storm rages as it is when the sun shines, as zealous for God when called to part the Red Sea as when called to lay down the life in martyrdom. **John Reynolds** said, *Sacred zeal may meet with storms and stones and stumbling blocks in its way; but its design and temper is to hold on and march thru all to the end.*

And it's obvious to see what an important virtue this is for pastors. There are some things in the ministry that are easy and fun to do; some visits are a delight; some sermons are a joy; some sheep are a pleasure to shepherd; some studies are a blessing to prepare. **But** there are so many things in the ministry that are plain hard. Some things are a burden; some sheep are taxing and time-consuming; some sermons are hard to preach—not because we don't believe them, but because we can think of several of our people who won't like what we're saying; some discipline is hard to administer; some sufferings are hard to sympathize with; some tears are hard to understand. And if we don't have a true zeal for God as pastors, then Spurgeon is right, it'd be better for us and better for Christ's church, if

거룩한 열심의 둘째 표지는 '선행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자신의 삶에서 이를 찾습니다. 열심은 그리스도인이 각 사람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마음의 일(heart-work)에 전념하여, 자신의 삶과 행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열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와 부지런함과 굳은 결심과 기쁨으로 달려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는 "열심이 있는 영혼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쉬지 않고 '내가 주께 무엇을 드려야 하지?'하고 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이 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지런함과 기쁨으로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열심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일을 행하기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게 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게으름과 뜻뜻미지근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열심의 셋째 표지는 '지속성'(constancy)입니다. 뜻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는 열심을 가지지만 다음 날에는 그렇지 않고, 찬송에는 열심이지만 말씀에는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열심을 가지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그렇지 않으나,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내일도 오늘과 같은 열심을 가지기 위해, 십자가(cross)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것과 동일한 열심으로 왕관(crown)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씁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나 해가 날 때나, 홍해 바다를 가르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나 순교를 당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집니다. 존 레이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열심은 폭풍과 돌과 장애물을 마주칠 수 있지만, 그 의도와 성향은 지속되어야 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통과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거룩한 열심이 목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목회에서 쉽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방은 즐겁습니다. 어떤 설교는 기쁨이 됩니다. 어떤 양들은 기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준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목회에서 아주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양들은 부담이 되고 시간을 많이 들이게 합니다. 어떤 설교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중의 몇몇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계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고통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눈물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열심이 없다면, 스펀전(Spurgeon)이 한 말마따나, 목사 말고 무슨 일이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we did anything else in all the world than be a pastor!

A fourth mark of sacred zeal is *a commitment to self-examination*. It's a *hypocritical zeal* that spends all its energies *criticizing* others and *pointing out* the speck in a brother's eye but sees nothing of the beam in its own. True zeal, **Richard Greenham** said, *casts the first stone at ourselves; it plucks the beam out of our own eyes in order that we may the better draw the dust out of another's eye*. And **John Evans** said, *the first and principal province of Christian zeal is in relation to ourselves and to other people only in the second place*. This means *zeal's first and primary business* is at home, in a man's own heart and life, in a man's own home and work place, in a man's own reputation and witness. The zealous Christian seriously examines himself to see the *sin* in his own life: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sins in the abuse of liberty, sins of willful rebellion, sins of careless neglect, sins from a fear of man, sins from a love for this present evil world. And whatever wrong he finds in his life, he seeks by the grace of God to take no pleasure in it and to show it no mercy, but to hate it, repent of it, and mortify it.

And how important this is in the lives of men training for the gospel ministry! Your allowance of even one sin in your own life can tear down in one day an entire lifetime of ministry!! Just think how many vibrant ministries have been destroyed by a minister's breach of the 7th Commandment! And how many more lives in those churches have been deeply wounded and scarred and shattered by that man's hypocritical zeal! True zeal preaches to *self* before it preaches to others. True zeal brings *self* under the knife of God's Word and Spirit before it brings others under it. True zeal seeks the healing of the Great Physician and the discipline of the Loving Father for *self* before it sends others there.

And added to that, none is more tender and meek and companionate in helping a brother with *his* sins than that person who's been most busy with *his own*. Because it's as the Lord said to Israel when He charged them to *be compassionate and merciful towards sojourners*. He said, "*because you know what it's like to be a sojourner*." And it's the same here: it's the *zealous* person, who's worked so much on *his own heart*, who *knows* how tightly sin can cling to us, how deeply its roots run, how deceitful and crafty sin is, and how easily we can be blinded by our own self-love. And this causes the zealous person to be patient, tender, compassionate, understanding, and loving in dealing with the sins of others.

와 우리를 위해 더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의 넷째 표지는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지적하느라 모든 힘을 소모한다면 그것은 우선적인 열심입니다.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의 말처럼 참된 열심은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더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존 에반스(John Evans)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의 첫째 되고 중요한 분야는 우리 자신과 관계된 것이며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열심의 첫째 되고 우선적인 일은 자신의 마음과 삶에, 가정과 직장에, 자기 자신의 평판과 증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찾기 위하여 자신을 진지하게 살핍니다: 작위의 죄(sins of commission)와 부작위의 죄(sins of omission), 자유를 남용한 죄, 의도적인 반역의 죄, 부주의한 태만의 죄,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온 죄,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죄. 그리고 생활에서 무엇이든 잘못된 것을 찾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어떠한 기쁨도 찾지 않으며 어떠한 자비함도 보이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며, 회개하고, 죽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삶에서 단 하나의 죄에 대한 허용이 목회 사역 전체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활발한 목회 사역이 한 번 제7계명을 범함으로 망쳐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우선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깊게 다치고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검 아래에 다른 사람을 놓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세웁니다. 참된 열심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위하여 참된 의사(Great Physician)의 치료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죄와 근실히 다루는 사람이 어떤 형제를 그의 죄의 문제에서 가장 다정하고 온유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나그네를 동정하고 자비롭게 대하라고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죄가 얼마나 단단히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죄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교묘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And this is another evidence of how important this virtue is in the life of a minister of the gospel and a shepherd of souls. Without zeal, we become *impatient* with the slow growth our people, *critical* of their failures, *judgmental* of their motives, and *all-around insensitive* to the hard-work and spiritual warfare of sanctification—not because we don't know what the Bible says about it, but because—shamefully—we lack the experience of it in our own life.

Is sacred zeal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A *third* question is this: *is sacred zeal even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The Puritan's would say, Absolutely! And I'll give you three reasons why.

One, because God commands it. In Rom 12.11 Paul says, *Do not be slothful in zeal, be fervent in spirit, serve the Lord.* All our obedience to God is to be rendered as a service to Him who first loved us, and with the fervency of one who loves Him back and therefore holds nothing back. The OT equivalent to that verse is Ecc 9.10,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it with [all] your might.* In fact, the Lord Himself described the Christian life *in zealous terms* when He said in Mt 11.12 that His followers *take heaven by force.* Which is why the Puritan **Thomas Watson** entitled his book on that verse, *Heaven Taken by Storm.*

Two, zeal is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because we won't ever pursue holiness without it. You see, the Christian life is a race to be run, a war to be waged, a cross to be carried, a battle to be fought, and a prize to be won—all of which describe the *fervent* nature of the Christian's pursuit of holiness. And no part of that can be done without sacred zeal. Consider Paul's words in Tit 2.14, Christ came, he says, *to redeem us from all lawless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who are zealous for good works.* That means Christ died on the cross, not simply that we might be forgiven and redeemed from the bondage of sin, but also that we might be zealously committed to the *pursuit* of holiness.

Without sacred zeal, we run the Christian race by fits and starts, we go onto the battlefield half-armed, we wrestle in the morning, sleep in the midday, and stand idle in the evening, we confront sin sometimes, and we give ourselves to duty sometimes. Our Christian walk is neither hot nor cold, but lukewarm. And yet Paul says Christ died that we might be *zealous*

그리고 이것은 이 미덕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영혼의 목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회중의 느린 성자에 조바심을 내게 되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게 되고, 그들의 동기를 판단하게 되며 성화를 위한 영적인 전쟁과 힘든 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성경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이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가?

셋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청교도라면 ‘당연하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11에서 바울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순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 드리는 봉사로서, 그분께 사랑으로 보답하고 그리하여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사람의 뜨거운 열심으로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로마서 12:11에 대응하는 구절은 전도서 9:10입니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실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12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이 구절을 따라 그의 책의 제목을 『폭풍으로 침노된 천국』(*Heaven Taken by Storm*)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려야 하는 경주이며, 수행해야 하는 전쟁이며,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이며, 싸워야 하는 전투이고, 받아야 하는 상인데 이 모두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열성적인’ 성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심 없이는 그 중 조금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 2:14에 기록된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멍에에서 구속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다가 말다가 하고, 전쟁터에 반만 무장하고 나아가고, 아침에는 맞붙어 싸우고 한낮에는 잠을 자며, 저녁에는 게으르게 서 있으며, 때때로 죄와 겨루고, 때때로 우리의 의무를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은 뜨겁

for holiness, that we might *run*—by the grace of God—at a constant pace from beginning to end, aiming at a steady temperature all the way thru, so that as the Puritan **William Bates** said, *all our progress in the way of heaven is with the same zeal with which we started and the same seriousness with which we will come to the end of it.* The sincere and fervent pursuit of mature, vital holiness-of- life is *impossible* without the flame of sacred zeal burning in the heart for God; because it's *zeal*— Dear Friends—that burns up those great enemies of holiness: *love of self, love of pleasure, and love of ease,* and instead *pants* after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God.

And *three*, sacred zeal is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because it's the *crème de la crème* of Christian obedience—which is to say, it's the best part of it! The most fragrant aroma of every offering of obedience to God is caused by sacred zeal. That's what the Puritan **William Ames** meant when he said, *the highest degree of our obedience towards God consists in zeal.* And as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this is because it's the divine flame of *sacred zeal* that causes our graces and affections to fully blossom and bloom for God. It's zeal that *stirs them up* to do their *utmost*! Take these examples: when we're enflamed by a zeal for God's glory, we not only give, we give *cheerfully*; we not only serve, we serve *willingly*; we not only obey, we obey *freely*; we not only worship, we worship *reverently*; we not only love, we love *fervently*; we not only rejoice, we rejoice *gladly*—*and the list goes on!*—because *sacred zeal* causes the graces of the Christian life to *reach beyond the mere doing of a thing* to the fullest expression of the whole person and heart which that grace will bear. So that zeal's not satisfied with merely loving; but it presses the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to give its all!—to love God fervently and wholly. Sacred zeal makes us ever aware that we're not serving *man*, but *God*; and it helps us remember that *God looks*, not as man does, on the outward appearance of things done, but *on the heart with which it's done.* You see, in every area of Christian obedience, God's not simply concerned that we *do* the right thing. He's concerned that we *do* the right thing *rightly*. Because as the Puritan **Joseph Hall** put it, *God loves adverbs*—which is to say, God loves, not only *that* we work, but *how* we work it.

And so the point I'm making here is that sacred zeal is the *crème de la crème* of Christian obedience because it puts the *adverbs* into it! Without zeal, we do the works of God *coldly and carelessly* as if it were no great matter whether we did them or not. Without zeal, our obedience is no warmer than a painted fire and instead of honoring God, it *dishonors* Him.

지도 차지도 않고, 뜻뜻미지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지나는 모든 일에 같은 온도를 유지하도록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그래서 청교도 윌리엄 베이츠(William Bates)가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행하는 길에서 우리의 모든 나아감은 우리가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열심과 우리가 여정을 마칠 때에 가질 것과 같은 진지함을 품고 가야 합니다.” 성숙하고 필수적인 삶의 거룩함의 진실되고 열성적인 추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슴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열심의 불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 사랑하는 여러분 - 자기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안락함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룩함의 강한 대적들을 불사르고 그 대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동행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거룩한 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에서 최고 중에 최고(*crème de la crème*), 즉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순종의 제물의 가장 향기로운 향기는 거룩한 열심에서 나옵니다. 청교도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의 가장 높은 정도는 열심에 있다’고 말했을 때도 이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우리의 은혜와 정서가 온전히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위해 피어나도록 하는 것은 거룩한 열심의 신성한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그것들을 뒤흔들어서 가장 좋은 것이 나오도록 합니다. 다음 예시들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타오를 때, 우리는 그냥 드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냥 섬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깁니다. 그냥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순종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거워합니다 -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거룩한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가 단순한 행위를 넘어 그 은혜가 낳을 전 인격과 마음의 충만한 표현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단지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힘을 쏟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열성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거룩한 열심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듯이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에만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청교도 조셉 홀(Joseph Hall)의 말처럼, 하나님은 ‘부사’(副詞)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도 함께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거룩한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최고 중 최고 *crème de*

–That kind of obedience might have the *noun* and the *verb* of godliness, but it lacks the *adverb*—which gives it the beauty and fragrance of an offering and sacrifice acceptable and pleasing to God for the sake of Christ.

So sacred zeal is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because God commands it, because we won't pursue holiness without it, and because it's the *crème de la crème* of all our Christian obedience. It's no wonder the Puritan **John Evans** said, *zeal is the qualification that should accompany and characterize every exercise of grace and every performance of duty.*

How do you acquire and cultivate sacred zeal?

A fourth question is: if sacred zeal is so important and necessary to the Christian life, then how do we acquire it and cultivate it? The way to acquire and cultivate sacred zeal is the same as with any other divine gift: we must both *ask* God for it and diligently *use the means* appointed by Him to receive it. Sacred zeal can't be drummed up in our own spirits by hard work and it can't be bought or earned. It must be given; and it must be given by God. And thankfull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it's His pleasure to give the whole of His Kgdm, in the person of His Son, to all who sincerely ask Him for it.

So the *first* thing to do is pray. Pray to God that He who first put life into our dead hearts would now put the flame of zeal into it; and that He would, by that flame, cause all our affections to boil and blossom for Him.

The *second* thing is to put ourselves under a powerful ministry of the Word of God. Because as the Puritan **Samuel Ward** said, *sermons are bellows ordained to keep the fire of zeal alive.* And of course we can add to this the regular reading of God's Word which will kindle and cultivate the fire of zeal in the heart.

The *third* thing is to exercise the grace of meditation, fixing the thoughts upon such things as the love of God in Christ, the grace of God in our salvation, the mercy of God in our redemption, and all the many wonders of our blessed union with the Son of God. Because its thoughts like these—which set the wonders of our God's love before our eyes—that warm the heart after God's glory and put the hands to work for God's

la crème인데, 그 이유는 거룩한 열심이 순종에 부사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냉랭하고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이 없으면 우리의 순종은 그림 속의 불보다 더 따뜻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dishonor 합니다. 그러한 순종은 경건함godliness의 명사와 동사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acceptable 기뻐하시는pleasing 제물과 희생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주는 부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교도 존 에반스(John Evans)가 ‘열심은 모든 은혜의 실천과 의무의 수행과 함께하고 특징이 되어야 하는 자질’이라고 말한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열심을 얻고 개발하는가?

넷째 질문은 ‘만약 거룩한 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고 개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을 얻고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거룩한 선물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 정하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거룩한 열심은 고행(苦行)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혼에서 억지로 얻어낼 수 없고,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 죽은 마음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열심의 불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서가 그분을 향해 꿇고 그분을 향하여 피어나도록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있는 사역(ministry) 아래 두는 것입니다. 청교도 새뮤얼 워드(Samuel Ward)가 말한 것처럼, ‘설교는 열심의 불이 살아 있도록 하려고 정해두신 풀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열심의 불을 붙이고 커지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할 일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복된 연합과 관련된 많은 놀라운 것과 같은 일에 고정하면서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앞에 놓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

Kingdom.

The *fourth* thing is to make the most of Christian fellowship, *especially* the fellowship of the saints on the Lord's Day. The people of God are like the many embers of a great fire. Being with them encourages the red hot glow of zeal within us; but separated from them, we grow ashen white and ice cold. So commit yourself to a church family, and the zeal of others for God and His glory will work to provoke your own and keep the fire in your heart burning.

And the *fifth* thing is to exercise the greatest watchfulness against sin in your life. Sin is what the Puritans called a *quench-coal*. It's like water on the fire of your zeal. If you allow sin a place in your heart and life, it'll quench you zeal for God! So be sober-minded and watchful against all the temptations and subtleties of sin, and sincerely give yourself to all the occasions and duties of righteousness, and your zeal for God will thrive and endure.

What should you read to learn more about sacred zeal?

The *last* question is this: *What Puritan works should you read to learn more about sacred zeal?* Besides the book I wrote with Dr. Beeke entitled *Living Zealously*, you should read at least 3 books and 4 sermons.

As for *books*, you should read: A Discourse Concerning Sacred Zeal by John Reynolds, The Zealous Christian by Christopher Love, and Heaven Taken by Storm by Thomas Watson.

And as for *sermons*, you should read: A Coal from the Altar by Samuel Ward, Christian Zeal by John Evans, Zeal for God's House by Oliver Bowles, and The Duty of Zeal by William Beveridge.

I pray this brief lesson from the Puritans on *sacred zeal* has been a real blessing to you. And I pray that it might please God to use it to ignite a sacred spark in your soul that sets *you* on fire to live all of life earnestly and zealously to the glory of God!

SDG.

음을 덥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착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할 일은 성도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특히 주일에 성교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대한 불을 이루는 수많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시뻘겍게 빛나는 열심을 북돋웁니다. 그러나 그들과 떨어지면 우리는 재와 같이 하얗게 되고 얼음처럼 차갑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영광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열심이 당신의 열심을 자극하고 당신의 마음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할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최고의 경계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죄를 ‘석탄불 끄기(quench-coal)’이라 불렀습니다. 죄는 여러분의 열심의 불꽃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죄가 들어올 공간을 내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열심을 꺼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을 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과 미묘한 부분을 경계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로움의 모든 경우와 의무에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열심이 잘 자라나고 지속될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에 대해 더 배우려면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룩한 열심에 대해 더 배우려면 어떤 청교도의 글을 읽어야 합니까?” 제가 비키 박사와 함께 썼던 『열심으로 살기』(*Living Zealously*) 말고도 여러분은 최소한 세 권의 책과 네 편의 설교를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할 책은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의 『거룩한 열심에 대한 담론』(*A Discourse Concerning Sacred Zeal*), 크리스토퍼 러브(Christopher Love)의 『열성적인 그리스도인』(*The Zealous Christian*),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의 『폭풍으로 침노를 당한 천국』(*Heaven Taken by Stor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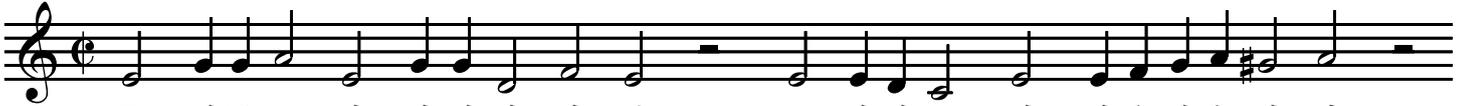
읽어 보실 설교는 새뮤얼 워드(Samuel Ward)의 「단에서 취한 숯」(*A Coal from the Altar*), 존 에반스(John Evans)의 「그리스도인의 열심」(*Christian Zeal*), 올리버 보울스(Oliver Bowles)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Zeal for God's House*),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의 「열심의 의무」(*The Duty of Zeal*)입니다.

거룩한 열심에 대해 청교도들로부터 배웠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며 살도록 하는 거룩한 불꽃을 여러분의 영혼에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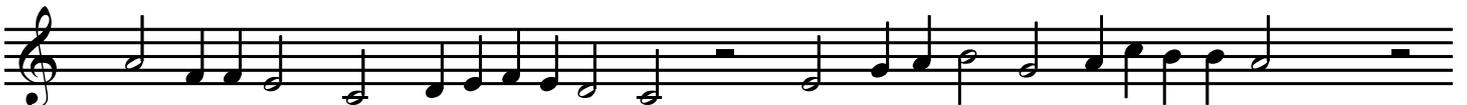
시편 69 (I)

다윗의 시
지휘자에게, 소산님 곡조를 따라서

Strasbourg, 1539/Geneva, 1551/Daejeon, 2005



1. 구 해 주 소 서, 나 의 하 나 님 목 까 지 물 이 차 올 랐 습 니 다
 2. 까 답 이 없 서, 나 미 워 하 는 자 목 머 리 털 보 이 다 더 랐 습 니 다
 3. 만 군 의 주 를 기 다 리 는 자 머 나 문 수 처 다 치 를 당 케 마 소 서
 4. 주 님 의 성 전 위 한 열 심 이 참 으 로 저 를 삼 키 었 습 니 다



디 달 곳 없 이 깊 고 깊 은 수 령 큰 물 에 빠 져 휩 쓸 립 니 다
 나 없 애 려 이 거 짓 말 하 는 자 자 나 원 수 들 이 통 더 강 합 니 다
 이 주 모 욱 하 는 는 자 자 욱 처 에 게 모 두 두 당 쏘 아 지 었 소 서
 주 모 욱 하 는 는 자 자 욱 처 에 게 모 두 두 당 쏘 아 지 었 소 서



주 님 께 내 가 부 르 짓 다 가 기 진 해 지 고 목 이 쉬 었 도 다
 흠 치 지 않 은 은 물 건 이 라 도 그 에 게 나 는 돌 려 주 었 도 다
 주 님 께 내 가 부 르 짓 다 가 기 진 해 지 고 목 이 쉬 었 도 다
 주 님 께 내 가 부 르 짓 다 가 기 진 해 지 고 목 이 쉬 었 도 다



내 하 나 님 만 기 다 리 다 가 두 눈 이 쇠 해 불 수 없 게 됐 네
 내 하 나 님 만 기 다 리 다 가 두 눈 이 쇠 해 불 수 없 게 됐 네
 내 하 나 님 만 기 다 리 다 가 두 눈 이 쇠 해 불 수 없 게 됐 네
 내 하 나 님 만 기 다 리 다 가 두 눈 이 쇠 해 불 수 없 게 됐 네

시편 69 (II)

다윗의 시
지휘자에게, 소산님 곡조를 따라서

Strasbourg, 1539/Geneva, 1551/Daejeon, 2005



5. 오 직주 님 계 기도 하 오 니 주 님 의 때 에, 크 신 자 비 따 라
6. 주 님의 크 신 계 인 자 하 따 라 주 님 호 와 주 님, 응 답 해 주 소 라
7. 제 모욕, 조 롱, 저 의 수 가 치 를 그 그 께 서 친 상 은 모 두 아 십 니 다
8. 그 들의 밥 상 올 무 가 되 고 그 잔 찻 상 은 덧 이 돼 버 리 다 리



확 실 한 구 원 베 폴 어 주 소 서 이 수 령 에 서 건 견 주 소 서
크 신 긍 홀 로 살 퍼 주 소 서 곤 경 에 처 한 중 을 보 시 고
대 신 들의 눈 은 주 침 침 하 여 지 내 고 그 들 의 허 는 리 향 상 떨 리 다 리
그 들의 눈 은 주 침 침 하 여 지 내 고 그 들 의 허 는 리 향 상 떨 리 다 리



원 수 손 에 서 구 원 하 시 고 깊 은 물 에 서 건 견 내 주 소 서
주 님의 할 사 굴 기 지 말 고 제 기 도 속 히 람 노 답 해 주 소 서
동 정 의 사 람 노 찾 지 못 하 시 으 로 사 람 내 지 못 하 으 소 내 서
주 님의 할 사 굴 기 지 못 하 시 으 로 사 람 내 지 못 하 으 소 내 서



큰 물 이 저 를 더 치 않 고 깊 은 구 덩 이 사 삼 기 지 않 도 록
제 원 수의 인 해 해 구 까 오 아 속 량 해 주 소 서
저그 들의 제 게 처 폐 하 마 때 에 속 초 를 주 소 서
그 들의 제 게 처 폐 하 마 때 에 속 초 를 주 소 서

시편 119 (I)

Geneva, 1551/Daejeon, 2007

알렙 1. 복 주 주 젊 주 증
 베트 2. 이 깨 님 은 님 거
 3. 있 서 깨 청 깨 의
 4. 도 규 나 년 죄 길
 5. 다 레 는 들 틀 을
 6. 그 명 감 무 짓 기
 길 하 사 엇 지 뻐
 완 시 하 으 않 하
 전 오 리 로 으 도
 해 니 라 써 러 다
 여 근 정 자 마 큰
 호 실 직 기 음 재
 와 히 한 의 속 물
 을 지 찬 길 길 보
 범 켜 송 을 이 다
 따 살 주 깨 말 그
 라 라 깨 꾀 씬 길
 견 하 드 케 간 더
 는 심 리 하 직 기
 사 이 리 리 하 뻐
 램 라 라 까 네 해

복 제 의 주 주 주
 이 길 로 말 님 님
 있 이 운 씬 을 의
 도 군 주 따 높 규
 다 게 의 라 이 레
 증 화 관 삼 찬 목
 거 정 단 갈 송 상
 지 되 배 것 하 하
 키 어 올 이 으 면
 며 서 때 라 니 서
 마 주 정 제 주 주
 음 님 직 마 님 님
 을 의 한 음 의 의
 다 규 마 다 올 길
 해 레 음 해 레 에
 주 지 주 주 가 주
 님 키 님 님 르 목
 찾 기 찬 을 처 하
 는 원 송 찾 주 며
 사 하 하 으 소 가
 램 네 리 니 서 리

진 그 주 주 주 주
 실 모 님 계 의 님
 로 든 의 명 입 의
 불 계 을 에 에 올
 의 명 레 서 서 레
 행 주 곧 벗 나 기
 하 목 게 어 온 뻐
 지 한 지 나 규 하
 않 다 키 거 칩 면
 고 면 나 들 서
 주 수 저 방 제 주
 님 치 를 황 입 님
 의 를 완 하 술 의
 길 당 전 는 모 말
 을 할 히 일 두 씬
 따 일 버 없 따 잇
 라 이 리 게 라 지
 견 없 지 하 말 않
 는 으 마 읍 합 으
 도 리 소 소 니 리
 다 라 서 서 다 라